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혜은 연구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서민우대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하였음. 이들의 대출 실적이 양호하여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 조성 기반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였음.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둔화되고 있으며, 서민금융의 대상 자격 제한으로 신용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수의 서민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서민금융 문제는 금융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최근 들어 금융시장 불안, 경기부진 등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하위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등 서민의 금융애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12년 3월 말 현재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약 660만 명에 이르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신용자의 1/3이 넘는 250만 명은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위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¹⁾
- 세계 주요국 중심으로 금융소외 해소(financial inclusion)와 분배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1)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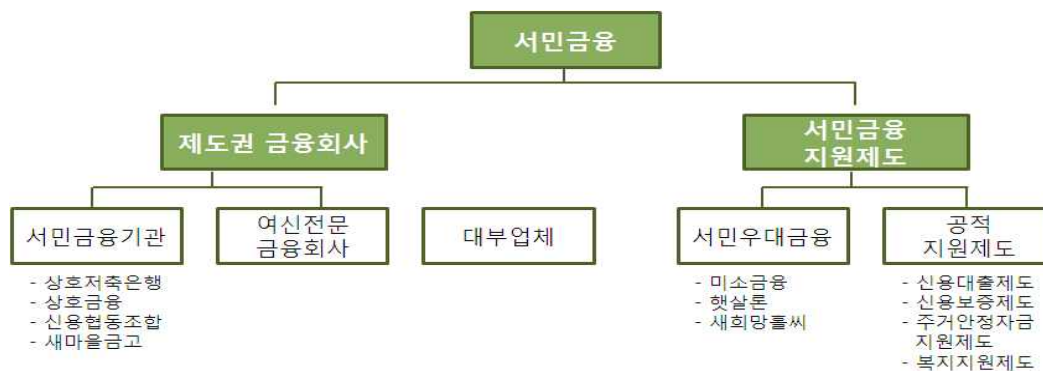
1~4등급: ('07)3,213 → ('08)3,487 → ('09)3,504 → ('10)3,672 → ('12.1월)3,963 23.3%↑

7~10등급: ('07)2,440 → ('08)2,554 → ('09)2,657 → ('10)2,575 → ('12.1월)2,648 1.1%↑

■ 서민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시장의 일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은 크게 제도권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서민금융기관, 여신금융회사 등이 있음.
- 이와 별도로 미소금융(2008년 7월), 햇살론(2010년 7월), 새희망홀씨대출(2010년 11월) 등 3대 서민우대금융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공적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림 1〉 국내 서민금융지원 체계



■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한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도모하였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금융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음.

- 미소금융은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약 8천억 원(향후 10년 동안 운영)을 재원으로 7~10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2~4.5%의 저금리로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337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미소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90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
- 햇살론의 경우 정부·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2조 원을 재원(향후 5년 동안 10조 원 지원 예정)으로 6~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자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 10~13%로 운영되고 있음.
- 새희망홀씨대출은 16개 은행이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활용하여 5~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 6~14%를 적용하고 있음.

〈표 1〉 3대 서민우대금융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재원	휴면예금 은행 및 기업 기부금 등	정부 서민금융회사	은행 자체재원
대출기관	미소금융지점 복지사업자* *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상인회, 신용회복 지원기관 등	서민금융회사	16개 은행
대출대상	· 개인신용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 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 원 이하	· 5~10등급(4천만 원 이하)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연 2~4.5%	연 10~13% (보증료 1% 별도)	연 11~14%
대출한도	· 운영자금: 1천만 원 · 창업자금: 5천만 원 · 무등록사업자: 5백만 원	· 긴급생계: 1천만 원 · 운영자금: 2천만 원 · 창업자금: 5천만 원 · 대환자금: 3천만 원	· 2천만 원(용도불문)

■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대 서민우대금융의 대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공 급확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 조성 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 2012년 2월 말까지의 대출실적은 49만 5천 건에 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채무조정자와 고 금리 대출의 전환대출 이용자는 각각 17만 명, 1만 7천 명에 이르는 등 서민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보임.
- 또한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중개기관이 저신용계층 대상으로 대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표 2〉 3대 서민우대금융의 실적

구분	미소금융 (2008. 07~2012. 2)	햇살론 (2010. 07~2012. 2)	새희망홀씨 (2010. 11~2012. 2)	합계
건수	63,037건	214,882건	217,299건	495,218건
금액	5,352억 원	19,197억 원	18,637억 원	43,186억 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 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으며, 서민금융의 대상 자격 제 한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 글로벌 경기둔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서민금융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3대 서민우대금융은 지원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서민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 은행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등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둔화²⁾되는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전체 가계대출³⁾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됨.
 - 비은행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⁴⁾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상당히 위축되었고, 특히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소액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등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음.
- 현재 서민금융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임.
 -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들은 은행으로부터 5~14%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은 2~3배에 달하는 20~30%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 서민금융에 대한 초과수요가 우려된다고 해서 무작정 신용공급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지출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하게 되고 부실채권 증가로 대출여력 악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함.

- 서민금융 문제는 금융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함.
 - 고용연계 대출과 같이 저소득 서민층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득창출과 연계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저신용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에 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져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kiri**

2) 은행대출의 7등급이하 비중: '08년 말 14.5% → '11년 말 11.6% (2.9%p 감소).

3) 2012.1~5월중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0.9조원 증가 (전년동기에는 9.6조 원 증가).

4) 저축은행: '97년 말 231개 → '12.3월 말 95개 (59% 퇴출).

상호금융: '97년 말 3,423개 → '12.3월 말 1,390개 (59% 퇴출).

신협: '97년 말 1,666개 → '12.3월 말 955개 (43% 퇴출).

새마을금고: '97년 말 2,743개 → '11년 말 1,448개 (47% 퇴출).